

노벨리스 알루미늄, 현대 ‘아이오닉(IONIQ)’과 혁신적 결합

-현대자동차 미래 모빌리티에 고강도 경량 알루미늄 ‘노벨리스 어드밴즈(Novelis Advanz™)’ 채택, 성장하는 하이브리드, 전기차 시장에 경량소재 솔루션 제공 -한국, 중국 생산기지 통해 아시아 시장 ‘알루미늄-친환경차’ 트렌드 주도

2016년 1월 19일 - 세계 최대 압연 알루미늄 생산 기업 노벨리스(아시아 대표 샤시 모드갈)가 현대자동차의 새로운 친환경 하이브리드 승용차 모델인 ‘아이오닉(IONIQ)’ 차체에 고강도 알루미늄 합금 노벨리스 어드밴즈(Novelis Advanz™)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구성되는 국내 최초의 친환경 전용 모델이다.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고연비 실현 및 주행성능 강화를 위해 후드와 테일 게이트에 노벨리스 알루미늄 소재를 채택하여 스틸 사용 대비 해당 부분의 무게를 약 40% 감량했다. 경량 소재의 사용으로 차체 무게가 줄면 차량의 배터리 파워, 연료 사용이 줄게 된다. 아이오닉의 평균 연비는 동급 국내 최고 수준인 리터당 22.4km/ℓ로 알려졌다.

노벨리스 아시아 샤시 모드갈 사장은 “미래형 친환경차 아이오닉을 통해 알루미늄의 ‘친환경·고효율·경량화’ 강점을 알리고, 현대자동차와의 의미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노벨리스 어드밴즈는 차량 경량화를 실현시키는 동시에 뛰어난 강도로 최적의 안전성을 구현하며 아시아 지역 친환경차 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벨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 감소를 위한 각국 정부의 글로벌 자동차 환경 규제가 갈수록 엄격해짐에 따라 2020년말까지 자동차용 알루미늄 수요는 매년 두자리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벨리스는 자동차용 알루미늄 판매가 자사의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5 회계연도 11%에서 약 25%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시아 시장에서도 노벨리스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강도 알루미늄과 한국 최초 친환경 전용차인 아이오닉의 결합을 통해 차량 경량화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노벨리스는 한국 울산공장과 중국 최초의 자동차용 알루미늄 생산기지인 창저우공장을 통해 아시아 자동차 시장에서의 알루미늄 보급 및 친환경차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 전 세계 자동차용 알루미늄 차체 시장의 글로벌 리더인 노벨리스는 아시아, 북미, 유럽 등 전 세계 주요 자동차 생산 시장에서 알루미늄 판재를 생산하고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노벨리스는 글로벌 유수의 자동차 제조사들과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맺고, 포드 F-시리즈 픽업 트럭, 레인지로버, 재규어 XE 등과 현대 아이오닉, 세비 볼트, BMW i3 등의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델 등 전 세계 180종 이상의 모델에 알루미늄을 공급하고 있다.

노벨리스 소개

노벨리스(Novelis Inc.)는 압연 알루미늄 제품 및 알루미늄 재활용 분야의 세계 선도 기업으로, 현재 11개 국가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 중이며, 11,500여 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15 회계연도 매출액은 111억 달러를 달성하였다. 북미, 유럽, 아시아, 남미 대륙의 운송, 패키징, 건설, 산업 및 소비자 전자제품 시장에 최고급 알루미늄 시트 및 포장재를 공급하고 있다. 노벨

리스는 인도 뭄바이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 아디트야 비를라 그룹의 자회사이다. 노벨리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 (www.novelis.com) 및 페이스북 (www.facebook.com/NovelisInc)과 트위터 (www.twitter.com/Noveli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